

Venture Radar

산자부, 산업기술 융자금 850억원 조기 집행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200억원의 자금을 융자키로 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자본재 시제품 개발에 800억원, 첨단기술 제품개발에 300억원, 신기술보급에 1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산자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책정된 자금 중 70.8%에 해당하는 85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된 용자액 550억원보다 300억원 가량 많은 것이다.

상환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분할)이며, 금리는 4.87%(을 1분기 기준)로 시중은행 금리와 연동된다. 융자 가능 금액은 소요 자금의 80% 이내로 최대 50억원까지다. 우대 대상 기업은 개발 기술의 수출 효과가 큰 업체 중 사업 수행 능력 등이 검증된 업체다. 또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의 개발 능력을 보유한 전문 업체도 우대 대상이다.

공공기관, 신기술인증 中 제품 20%구매 의무화

오는 5월부터 정부와 공기업은 특정 물품을 살 때 구매 금액 중 20%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할애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이회범 장관은 지난 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다양한 구매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국산 신기술 제품 구매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구매촉진방안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들은 특정 품목을 구매할 경우 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제품이 있으면 구매액 가운데 20%를 이들 제품 구

입에 사용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청과 국방부간에 시행중인 구매조 건부 기술개발제도를 올해안에 20개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일괄수 주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발주를 건설·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부 품 구매를 촉진하는 분리발주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장이 참여하는 공공구매촉 진민관협의회를 구성, 정례적으로 신기술제품 구매실태를 점검하 고 30대그룹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만들어 주요 기업들 의 구매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일자리 11만개 창출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올해 일자리 11만여개가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 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또 장비·재료·부품 분야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가 조성되고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200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 전략산업 클러스터가 새로 만 들어진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지원법 을 개정해 인·허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 중소기업 1만개 창 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공동 조성, 장비·재료·부품 분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할인점 확대 및 프랜차이즈 창업 6만2000 개, e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2만9000개 등이다. 지능형 로봇과 미래형 자동차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연구개발 (R&D) 투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조기 산업화를 유도하고 103개 기술과제에 1851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청, 벤처 M&A 지원 본격 착수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벤처기업의 재도약과 벤처투자 재개 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시장 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과 제도정비에서 펀드결성 등 M&A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지난해 벤처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M&A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4분기중 하위법령 등 지원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3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추가로 결성하고 M&A 중개비용 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M&A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망 구축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M&A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시 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런 지원책을 토대로 올해 2/4 분기부터는 업계의 자율적인 주식교환이나 인수합병, 영업 양수도 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IT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M&A 대상 매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코스닥 기업 M&A가 48건에 달했다.

중기청, 올해 2000만 달러 외자유치 목표

중소기업청은 올해를 외자 유치 원년으로 삼아 2000만 달러 이상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외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희망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두 차례의 민간전문기관 평가와 외국투자기관 심사역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외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업체 5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자유치 전문기관의 기업진단과 투자유치전략수립, 사업계획서와 영문IR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투자기관을 상대로 기업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투자기관 30여 개사와 싱가포르, 미국 등 300개의 투자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EU, 사우디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T 수출 '공동전선' 펼친다

IT 유관기관들이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전선을 펼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IT수출지원센터·한국정통신수출진흥센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문화콘텐츠진흥원 등 10개 IT기관이 최근 'IT유관기관 해외마케팅 협의회'를 갖고 IT수출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은 ▲IT수출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 ▲수출기업·지원정보 DB의 공유 ▲성과 중심의 글로벌 마케팅 전개 ▲시장 성숙도·품목에 따른 전략적 마케팅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창업자금 60% 지방에 배정한다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중소·벤처창업자금 60% 이상이 비수도권지역에 공급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극심한 침체로 벤처기업과 신설법인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방에 중소벤처창업자금 1800억원 이상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지원대상인 중소벤처창업자금은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중고설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 및 매입, 경매에 의한 사업장 인수 등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한도는 연간 1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5.9%(변동금리)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벤처창업자금은 작년과 달리 사업장매입 자금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해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가능하다. 또 운전자금 소요기준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해 소요자금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업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벤처 이슈

벤처 자금시장 '기지개'

3대 창투 올해 100% 증가한 4400억 투자계획

지난 2001년 이후 공공 얼어붙었던 벤처투자 시장이 올해를 기점으로 서서히 기지개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3대 창투사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을 100% 증가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 2004년 2월 4일(수)자 매일경제 17면

주요 벤처캐피탈 투자 계획	대상	규모	비고
기아캐피탈	1,200억	1,200억	1,200억(1,200억) 2,000억(2,000억)
신한캐피탈	1,000억	1,000억	1,000억(1,000억) 2,000억(2,000억)
삼성캐피탈	1,000억	1,000억	1,000억(1,000억) 2,000억(2,000억)
SK캐피탈	1,000억	1,000억	1,000억(1,000억) 2,000억(2,000억)
현대캐피탈	1,000억	1,000억	1,000억(1,000억) 2,000억(2,000억)
LG캐피탈	1,000억	1,000억	1,000억(1,000억) 2,000억(2,000억)
KB캐피탈	1,000억	1,000억	1,000억(1,000억) 2,000억(2,000억)
우리캐피탈	1,000억	1,000억	1,000억(1,000억) 2,000억(2,000억)
농협캐피탈	1,000억	1,000억	1,000억(1,000억) 2,000억(2,000억)
신협캐피탈	1,000억	1,000억	1,000억(1,000억) 2,000억(2,000억)

매일경제

지난 2001년 이후 공공 얼어붙었던 벤처투자 시장이 올해를 기점으로 서서히 기지개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3대 창투사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을 100% 증가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 2004년 2월 4일(수)자 매일경제 17면

비상장株 공인평가·양도세 추후 과세로 걸림돌 제거 올 벤처 M&A시장 불 붙는다

비상장 M&A 활성화
공인평가 도입으로 비상장 M&A 활성화 기대
양도세 과세로 걸림돌 제거

이미 300억원 재각의뢰 - 100개월도 준비중
중기청, 217억 펀드 조성 '올 시장 1회기'

중소기업청은 올해 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장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M&A 활성화를 위해 2175억원의 벤처 M&A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절차가 간소화 되어 올 벤처기업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기사

▲ 2004년 2월 3일(화)자 한국경제 벤처·기술면

한국경제

중소기업청은 올해 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장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M&A 활성화를 위해 2175억원의 벤처 M&A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절차가 간소화 되어 올 벤처기업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기사

▲ 2004년 2월 3일(화)자 한국경제 벤처·기술면